마야투어
해외자유여행 전문사
☎ 02)722-9001
신상의 동불로 불쾌지를 밝혀는 상저순에!

佛教新聞

bulgyo.com

1960년 1월 1 창간 주간제 발행

불기 2557년 8월 24일 (2013년 / 단기 4346년 불력 7월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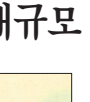
대표전화 (02)730-4488 제2939호 토

침향은 취운향당에 있습니다
www.cwh.co.kr ☎ 054-933-6371

조계종-서울시

'통합종단 출범이후 최대규모 불사' 협약

총본산 조계사 견지동 45번지 일대 한국전통문화 체험 문화공간 조성 2022년까지 10년간 단계별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조계사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위치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조계종 제공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조계사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위치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사업대상지 현황. 붉은 색 민이 역사문화관광지정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조계종과 서울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사업은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원예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오년 전부터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심포지움 구성해 심포젬에 대해 진행해 왔다"며 "우리 종단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업이 미래 서울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시장은 "조계사를 비롯한 견지동 일대는 우리나라 불교계 본산이이 민족문화의 보고"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곳이 진정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본산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과 서울시는 이날 중에 심포젬의 협약을 상호해 사업주체, 사업방식 등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정 홍다영 기자

■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지' 향후 모습

한국 전통문화 총본산 '기대'

조계종과 서울시가 지난 20일 발표한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지와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5년간이다.

범위는 견지동 45번지 일대 125평지로 총 2029.577㎡에 걸쳐 불사가 추진된다. 조계사를 중심으로 우리는 동양철학, 이에로는 불교학 인재와 일상적, 일꾼은 옆 건물까지 포함된다. 부지 내 조계사 대웅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우정총국을 제외한 지역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 템플스테이 체험관, 역사교육관, 관광버스 주차장 등이 설립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현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우정총국, 전법회관이 위치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10~27억사원원 및 역사교육관이 건립되며 교육관 지하에는 전통문화상품에이에이드가 마련된다.

역사교육관은 지하1층, 지상층층 구모다. 그간 종단은 국가차원이 불교문화를 보존드 내세워 스님들을 연행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한 10-27년나들 상기시키기 위한 역사교육관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지난 2006년 10월에는 조계사 등 서울지역을 역사교육관 건립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석심 총무원 기획차장은 "10-27년나 당시 작전명이 '작계45'로, 견지동 45번지를 의미하는데, 이번에 견지동 일대에 역사교육관이 건립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역사교육관 내에는 각종 상가가 입점해 있는 전통문화상품에이에이드도 마련된다. 이는 현재 조계사 안으로 위치한 상가들의 이주를 고려한 것으로, 조계사 주변에서 불구점과 승복집, 불교서점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종단은 상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전통문화 상품에이에이드 건립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케이드 운영주체나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조계사 사업은 조계사 남쪽일대에서 진행된다. 여기에는 지상4층의 템플스테이 체험관이 들어서며 지상 7층의 호국관, 팔상전, 보제루, 극락전, 종각 등이 설립된다.

이와 함께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도 새워진다. 조계사 인근은 주말만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 때문 관광버스들로 몸살을 앓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게다가 경복궁 내 대형버스 주차장도 폐쇄가 예고되고 있어, 주차장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종단은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조계사 입대 주차시설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석심 차장은 "조계사는 한국불교종조단이면 상징적 의미를 가진 공간"이라며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불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onsaebi@daum.net

■ 조계종-서울시, 협약식 맺기까지

불교-유교문화 동시체험 '공감'

이번 사업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서울시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몇 가지 쟁점적 장차를 거쳤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산하 서울공공부지관리센터에서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경제성 검토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조계종과 서울시는 공간배치를 위한 세부논의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으로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심사와 중앙정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2022년을 목표로 예산확보 및 사업을 통 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조계종과 서울시는 그 첫 단계로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상호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심포젬과의 구상에 대한 명단을 서로 교환하지 않았지만 이달 안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심포젬의에서는 조계종 대외협력팀 관계자와 서울시 문화관광국 다양한 분 참석자들이 만나갔다.

시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1990년대 뿌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구체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불교계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서울 도심부 4대문 안에 불교와 유교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존치 않다고 평가, 이 구동성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불교계도 정부 및 서울시와 상호협력해 세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인사동과 조계사 경복궁을 연결하는 문화벨트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협에서 이번 협약은 조계종과 서울시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의 첫 단추를 꿰는 원예서 대외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 총무원 기획차장은 "심사는 내년 4월 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협의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서울시와 상호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조기에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서울시에 어려움이 예상돼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는 등 사업구상단을 협의해 나가기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0@bulgyo.com

社 告 불교신문 법보시캠페인

여러분 이웃과 포교현장에 법교신문을 보냅시다

1구좌 5,000원

불교신문 법보시는 또하나의 도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포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이웃을 이웃과 포교현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을 시작합니다. 해외 등 정보 신문사이면 포교 시 현장 이웃이 여럿을 이고 있는데, 포교현장이 병원 군도소, 군부대, 교 회 등 포교이어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 서 불자님들의 자비심을 기대하고 운 합니다. 당사자의 한 스물은 법보시에 게 거기 자신과 주변을 위한 선업을 놓 는 일입니다.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참여는 나 상에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달 수 있는 환희심을 주는 일입니다. 나는 삶 기쁨에 젖은 동참 단부드립니다.

■ 후원기금납입장 (02) 730-4488
■ 문 자 전 송 (010-4157-4406)

전제 종정예하 하안거 해제법어 발표 3면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 사진공모전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유산 관련 사진 콘텐츠를 발굴, 확보하고 국 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모집요강

• 공모내용 전국의 우수문화재, 생태서식,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전통문화체험 등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 가치 있는 사진을 찍 습하는 사진, 전통문화의 창주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 "문화유산정보" 참조

• 공모기간 2013년 9월 25일 ~ 10월 24일(마감일 당일 이전 접수분

•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작품공모 TUMBAL JPG 파일(3메가 이하), 3000픽셀 이상 크기 사진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http://kicphoto.kr/), 디지털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사상내용 대 상(1명)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최 우 상(1명)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우 수 상(2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장 려 상(3명) 상패 및 상금 50만원
특 별 선(10명) 상패 및 상금 30만원
입 선(30명) 상패 및 상금 10만원

• 시상일 및 장소 2013년 11월 중(추후 통보)

• 문 의 사진공모전 담당자(kayk.yoon2000@daum.net) 또는 전화 02730-4488 팩스 02730-4487

공모규정

• 접수 신청서에 필요한서 등 참가자수준 기별로 등 구체적으로, 접수명 등, 사진제 대한 설명 등
• 동일 작품으로 두 공모전에 중복접수 되면 무효, 동일한 사람이 동일 명목 공모전 제출 불가
• 유도 인쇄물은 사진제작(인화지, 캔버스 등) 후 제출 작품은 유효로 사진고유 주요특징 파손되어, 이물질 묻거나 제출 불가
• 제출된 작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입상되지 못한 작품은 일정기간 보관 후 일정기간 내 폐쇄해야 함
• 유도 공모작품은 복제의 초상권 및 지적재산권 등 기타 제기될 법률제소는 인해서, 정보작성 등 작품등록 시 사진제공은 "사진초상권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상자의 경우는 시상일에 한하여 사상일에 한해 불참시 입상자 취소할 수 있음
• 접수 시 개인 개인정보, E-mail 주소, 집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기타 접수자 없은 규정은 주최측의 결정에 따름

→ 공모내용
전국의 우수문화재, 생태서식,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전통문화체험 등

→ 시상내역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http://kicphoto.kr

→ 공모기간
2013년
9월 25일
~ 10월 24일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불교신문 문화재청 국가유산청